

# 문재인 전 대통령-강기정 시장, 디자인비엔날레 관람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강기정 시장과 함께 '202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 2025 현대세계 양궁선수권대회'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맞이해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를 함께 둘러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강 시장은 약 1시간 동안 ▲포용디자인 35년의 여정-옥수와 스마트디자인 ▲광주디자인진흥원의 광주도시철도 포용디자인 프로젝트 ▲공간경험 확장을 위한 이(e)-모빌리티 모듈형 거점 ▲로봇 보조 엄지손가락 '세 번째 엄지(Third Thumb)' ▲고령자 돌봄 로봇 '램미(Rami)' 등 전시를 꼼꼼히 살펴봤다.

문 전 대통령은 관람에 앞서 방명록에 '디자인 예술의 혁신과 포용'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이후 제 13·14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광주를 방문하는 등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

문 전 대통령은 "디자인이 주로 아름다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는 포용디자인이 주제이다"며 "너와 내가 함께"를 지향하는 것이 새롭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대화를 더 할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함께'의 가치가 바로 광주 정신의 핵심"이라며 "5·18민주화운동에서

## 12일 광주 방문... 디자인비엔날레·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관람 등 문 전 대통령 "디자인비엔날레 갈수록 발전... 포용 주제 새로워"



시작된 광주의 포용과 연대 정신이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는 앞으로도 문화 예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포용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광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강기정 시장은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 리커브 개인전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을 찾아 양궁 경기를 함께 관람했다.

한편,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1월2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올해 전시는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디자인이 미

적·기능적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역할을 조명한다. 미국·일본·영국 등 19개국 429명의 디자이너와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를 '광주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문화관광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전광훈 기자

## 19~21일 해남·진도서 '명랑대첩축제' 개최

군함 퍼레이드·수문장 교대식·만가행렬·케이팝 공연 등

전라남도는 2025년 명랑대첩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해남 우수영관광지와 진도 녹진관광지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고 밝혔다.

명랑대첩축제는 1597년 9월 16일 정유재란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적을 물리쳐 조선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역사문화 축제다.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 민초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호국 해양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축제는 예년과 달리 주무대 장소를 해남 우수영관광지 솔레마당으로 변경해 보다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9일 개막식에선 주제공연으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 호남 백성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세계 해전사의 기적 '명랑대첩'을 생생히 재현하며 전남의 역사·해양문화의 저력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특히 주무대는 국내 최초로 판옥선 모양의 무빙스테이지를 구성, 19~20일 두 차례 명랑대첩을 주제로 디지털 액션극 공연을 선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 회전 리프트, 화포와 불꽃·라인



로켓 연출을 활용해 당시 명랑대첩을 스펙타클(Spectacle)한 미디어로 보여 주며 관람객에게 박진감을 선사한다. 공연 마지막에는 케이팝 디바 소향이 출현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 등으로 관람객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특별히 마련된 '명랑 헌터스' 부스에서는 전남 관광과 현대적 콘텐츠가 결합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남 강진 한국민화박물관과 협업해 호작도 굵직 판매·체험 이벤트가 진행되며, 조선 수군의 것과 의복을 입어보는 조선수군보이즈의 색채도 마린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색다른 즐거움을 더한다.

연성호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지역 내 탄탄한 실업팀부터 각급 학교 내 양궁 유망주 선수들과 겨뤄보려는 해외 팀들의 수요도 상당한 만큼 시설만 뒷받침된다면 전지 훈련장으로서 경쟁력이 확실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익수 광주양궁협회 부회장은 "선수단 숙소, 트레이닝 센터 등 양궁장 부대 시설만 보완해도 준수한 경기 환경과 훌륭한 연습 상대가 갖춰져 있어 '전지훈련 캠프'로서 빠지는 구석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궁 광주'에 걸맞는 지역 내 선수단을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화두다.

현재 광주 지역 내 초·중·고, 대학, 실업팀 선수 규모는 남자 88명, 여자 87명이다. 인구 대비 다른 지역과 견줘 선수 수는 적지 않지만 우수한 선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고등학교 팀이 유일 무이다. 광주 양궁 계보를 이을 차세대 스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교팀 신설이 시급하다.

현재 광주 지역 각급 양궁 팀은 초등학교 6곳에 양궁 팀이 있다. 양궁을 접하게

해주는 생활 체육 수준에서는 다른 종목과 비교해 관측은 수준이지만, 프로 선수로 육성하는 중·고교 팀이 적다.

중등부는 광주제중, 운리중, 동명중 등 3개 팀이 있으나 고교 팀은 광주제고(남자·여자부)가 유일하다.

대학에는 광주여대, 조선대 등 2개 팀, 실업팀은 광주시청·광주은행(여자부), 남구청(남자부) 3개 팀으로 늘어난다. 실업팀은 1개 팀이 늘었지만 우수 선수 자원을 양성해야 할 고교팀이 모자란 것이다. 그만큼 선수 풀이 좁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0년까지는 한 사학법인에서 중·고등학교에 양궁 팀을 운영했으나 다른 목적을 육성키로 하면서 문을 닫았다.

박 부회장은 "프로 선수로 가기 전 단계인 고등학생 선수 풀이 탄탄해야 한다. 협회도 지역 내 실업팀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고 보고 양궁 팀을 창설할 고등학교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양궁 메카' 광주의 진면모를 알렸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의 유산을 어떻게 남기고 유지해갈 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후속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 동구 "무등산에서 보물 찾고 달빛기행 즐기자"

전시·체험 '우리, 하늘만큼...', 11월 말까지 중심사 일일

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의재정원한바퀴 ▲올빼미 달빛기행 ▲춘설차 다도(茶道) 체험 ▲함께 그리기 체험 등 4가지로, 의재 허백련 선생의 예술정신이 깃든 춘설현 주변 의재문화유적지를 산책과 놀이, 체험을 통해 색다르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의재정원한바퀴'는 보물찾기 프로그램으로 의재미술관 주변에서 무들의 숨겨진 비밀과 이야기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올빼미 달빛기행'은 중심사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진행되는 문화기행 프로그램이며 우드 카빙과 숲속 요가 등을 선택해

체험해 볼 수 있다. '춘설차 다도 체험'은 춘설차밭에서 나는 차잎을 활용해 차를 만들고 시음해 보는 시간으로 예절교육도 함께 진행되며, '함께 그리기 체험' 시간에는, 우리만의 동화 그리기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밖의 의재미술관에서는 어린이 동화를 주제로 특별한 전시도 열리는데, 체험북 제작 코너, 독서·놀이공간 등을 마련해 의재 선생의 삼애사상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무등산에서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 일환으로 어린이 체험·전시 프로그램 '우리, 하늘만큼 땅만큼'을 마련, 이달 1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구와 의재미술관, 웃는 땅콩어린이재단(LPCF)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무등산 의재미술관과 중심사 일원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프로그램

## 서구, 주민 건강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

보건소·대학·의료기관 협력... 검진, 치료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초검사 ▲안과검진 및 시력측정 ▲구강검사 ▲우울증·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을 비롯해 ▲치매검사 ▲한방진료 ▲물리치료 ▲결핵검진 ▲손

마사지·네일아트 등 뷰티케어 ▲영양상담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약물 폐기 처리 방법,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안과검진·정신건강검사와 치매검사의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이원구 보건소장은 "주민의 건강은 곧 지역의 활력이라며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통해 생활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